

# 중국인 학습자의 효과적인 한국어학습을 위한 문제 유형 연구

김중섭([jskim@khu.ac.kr](mailto:jskim@khu.ac.kr))

대한민국,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회장

이 논문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한국어 학습상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겪는 어려움은 대개 문법과 발음에 대한 것이며, 이는 다음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기본 어순을 비롯하여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SOV 구성을 갖는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가 SVO 의 구성을 보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어순이나 문장 구조는 교재나 교사가 사용하는 예문 등을 통해 초급, 중급, 고급의 전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노출되고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이 주를 이루면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구어를 중심으로 한 형태나 표현의 의사소통기능에 초점을 맞추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자도 기본적인 어순이나 전체적인 문장 구조보다는 초점이 주어진 형태나 표현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는 매 교실에서 한국어를 접하면서도 한국어의 어순과 문장 구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중국인 학습자가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나 교실 현장에서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 중에 이러한 특징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어 조사 사용과 동사 활용형에 대한 연습과 활용을 강화하여 학습자의 사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립어인 중국어와 달리 첨가어인 한국어는 조사를 사용하여 선행 성분의 문장 내 기능을 나타내고, 어미 변화를 통해 명제에 대한 서술 방식과 시간 개념, 그리고 담화 상황에서의 높낮이 등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드러낸다. 의사소통능력에 중점을 둔 한국어 교수-학습 활동은 구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중국인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한국어 조사의 사용 능력이다. 구어에서 자주 생략되는 조사는 첨가어인 한국어와 달리 고립어인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가 쉽게 익히기 어려운 내용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를 생략하지 않은 문장의 연습과 활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구어뿐 아니라 문어에 대한 학습을 병행하여 조사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어미 변화 역시 제시 단계에서의 설명과 연습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의 발음을 지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평음, 경음, 격음의 구분은 한국어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으로, 중국인 학습자뿐 아니라 일본인 학습자, 영어권 학습자에게도 쉽지 않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은 평음과 경음의 구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한국어 교육에서 평음, 경음, 격음의 발음 연습이 초급 이전의 예비편에서 주로 다루고 이후에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피드백의 형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모국어와 다른 외국어의 음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모두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초급, 중급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별도의 발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간과해 온 위와 같은 특성들에 대한 주의와 고려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맞춤 교재가 제작된다면 중국인 학습자의 성공적인 한국어 학습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핵심어 :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교육, 한국어 문법, 한국어 발음

## 1. 서론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18 년이 되었다. 그동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우수 대학의 한국어학과 설치 증가, 학습자 수 증가 등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 양성 및 현지 특성에 맞는 교재 출판에 이르기까지 질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김철(2008:276~282)은 2008 년 현재 중국에서는 3 년제 전문대학교 중등전문학교, 기타 비정규교육기관을 제외하고 70 여 개의 본과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생겼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에서 중국 전역에서 가장 우수한 100 개 대학을 중점 육성하는 프로그램인 ‘211 공정’에 포함된 대학도 16 곳이나 된다. 또 중국 내 한국어학과의 교수진은 2008 년 현재 390 여 명에 달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초빙된 한국어교수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실제 교수진 수는 더 많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0 년 이후 이른바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란 세대들이 대학생이 되기 시작한 최근이야말로 한국어교육의 비약적인 성장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국어학과를 선택하여 공부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그 관심을 잃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들에게 가장 잘 맞고 좀 더 효과적인 학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성공적인 학업 성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원하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으려면 성공적인 학업 성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 한국어학과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한국어 학습상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 조사를 통해 중국 한국어학과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의 문제 유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유형을 밝힘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 모색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연구

최근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특징으로는 오류 연구에 집중된 경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어휘 오류나 발음 오류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경봉·이향화(2005)는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오류를 연구하였는데, 중국인 학습자는 단순히 비슷한 의미의 한자어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중국어의 관습적 표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치 오류에는 음운적 유사성에 기인한 형태적 오류, 적절한 고유어를 몰라서 한자 어휘로 대치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한자어 유의어의 사용 오류, 중국어 간접으로 인해 품사의 문법적 특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 중국어의 관용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누락에서는 한국어에 필요한 문장 성분이 중국어에는 없어서 보이는 오류, 불필요한 성분을 첨가하거나 선, 후행 성분의 중복으로 간략한 표현을 복잡하게 만든 오류 등이 있다고 하였다. 오류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어 고유어에 대응되는 중국 한자어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같은 한자 어휘가 의미상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관용적 표현의 비대칭성이 원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홍은진(2006)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중에서도 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명사 오류는 한국어의 의미·형태의 유사성에 의한 차이, 중국어와 한국어의 의미적 유사성에 의한 차이, 중국어가 한국어음으로 전이된 것, 중국어가 그대로 전이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대명사의 오류는 '나'와 '내', '저'와 '제', '누구'와 '누가'의 형태·의미적 유사성에 의한 차이로 인한 오류가 보인다고 하였다. 또 동사와 형용사의 오류는 한국어의 형태, 의미적 유사성의 차이, 중국어와 한국어의 의미적 유사성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수관형사의 오류는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를 몰라 일어난 것과 중국어가 전이된 경우가 있고, 부사의 오류는 한국어의 의미적 유사성에 의한 차이, 중국어의 전이로 발생된다고 보았다. 연어의 오류는 명사와 동사, 조사의 호응과 관계된 것이므로 단순히 조사의 오류로 설명할 수 없지만 초급 단계부터 어휘와 조사를 겸한 연어 학습을 시킨다면 연어 오류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병운(2008)은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학습자의 음운적 오류는 한국어 특유의 비음동화 현상, 사잇소리 현상, 경음화 현상의 오류가 많음을 밝혔다. 문법적 오류는 주격 조사와 보조사(은/는)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목적격 조사의 을, 조사 생략, 연결어미(-으니류) 사용과 시제 사용의 오류, 높임법(상대높임법)의 오류 등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어휘적 오류는 중국어식의 어휘 사용, 지시어의 부적절한 사용이 많았고 그밖에 모국어의 간접현상으로 인해

중국식의 외래어 표기, 중국어 발음으로의 표기, 실제 발음과 표기의 차이에서 오는 오류 등이 있다고 하였다.

김경훤(2008)은 중국 대학생들의 문장에 나타난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 사용에서는 조사의 혼란(이/가와 은/는, 이/가와 을/를 사용의 혼란), 조사 생략, 그 외 처격, 공동격, 여격, 속격 조사 등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시제에서는 시제 불일치, 어휘에 시제 개념이 포함된 단어들 이 그와 어울리지 않는 시제와 연결됨으로써 어색함을 보이는 문장도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호응 문제는 주어와 술어, 목적어와 술어, 부사어와 술어 등의 호응 관계에서의 오류를 보이며, 어미 활용에서는 능동과 피동 및 수동의 적절하지 못한 사용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연결어에서는 정확한 연결어 사용의 오류, 생략해서 문장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문장 내에서 정확한 어휘를 선택하지 못함으로 인한 오류도 많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유형선(2008)은 한국어 중급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 범주를 습득하는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작문 자료를 형태소 분석기로 분석하여 품사별 출현 빈도수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명사가 가장 적고 동사, 형용사, 부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품사별 오류 원인은 대명사와 수사, 동사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대명사는 용법을 모르고, 수사는 기수사와 서수사를 혼동해서이며 동사는 의미를 부정확하게 이해하거나 ‘-하다’ 접미를 남발하여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 어휘 오류의 발생 원인으로는 중급 단계에서 습득해야 하는 어휘가 많아지고, 어휘의 연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나 한국과 중국의 한자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보였다. 특히 듣기로 익힌 것으로 추정되는 어휘의 오류 빈도가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발음과 표기가 다른 한국어의 특성과 중국어에 중성이 없는 특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박현선(2008)은 중국 산둥대학 위해분교 한국학원의 학생 84 명을 대상으로 학습자 요구 분석을 실시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회화교수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또 한국어 교사의 판단과 의견을 수렴한 교수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동(同) 대학의 한국어 교사 14 명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화수업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발음, 억양, 문법의 순이었다. 또 회화 수업에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학습자들은 문화이해, 발음, 억양 순이었고, 교사는 발음, 문화이해, 어휘 순이었다. 교사들이 인지하는 학습자들이 습득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는 발음, 문법을 꼽았다. 또한

발음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교사가 지적한 바는 모국어 발음 습관과 중국에 없는 음운이었다. 또한 학습자들은 한국어 억양 학습이 조금 어렵다고 느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감정표현을 꼽았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한국어 억양 학습에 대해 별로 어렵지 않게 느낀다고 보았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의미를 잘 몰라서라고 보았다.

장향실(2009)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절 오류를 분석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V, GV, CV, CGV, VC, GVC, CVC, CGVC 의 8 가지, 중국어에는 V, CV, VV, VC, CVC, VVC, CVV, VVV, CVVV, CVVC 의 10 가지 음절 유형이 있다. 이런 음절 구조의 차이는 오류를 생성하게 되는데, CV 구조에서 나타나는 이중 모음 발음의 오류, CV 구조에서 나타나는 '시, 씨' 및 '라, 러, 로, 루' 등에서 초성 'ㄹ' 발음의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또 CGV 유형에서는 '자, 저, 조, 추' 등을 발음할 때 활음 'j'를 탈락시키지 않고 발음하는 오류, VC 유형에서는 음절 말 종성의 'ㅂ, ㄷ, ㄱ, ㄴ'를 발음하지 못하는 오류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CVC, GVC, CGVC 음절의 경우 유형적 오류보다는 음절 개별적 오류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보편적으로 한국어 발음, 어휘 영역에서 오류를 보였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고려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각 영역에서 중국 한국어학과 학습자들이 보이는 문제 유형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3. 설문조사 대상과 방법

#### 3.1. 설문조사 대상

중국 한국어학과 학습자들의 문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중국 각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실한 태도로 교환학생으로 선출되어 한국에 온 학습자들 47 명이다. 소속 대학은 북경외대, 상해외대, 북경대, 광둥외대, 북경제 2 외대, 천진외대, 북경어언대, 서안외대, 대련외대, 사천외대, 산둥대, 산둥사범대, 중국해양대, 길림대, 흑룡강대, 복단대, 남경대, 산둥대 위해분교,

중앙민족대, 북경공업대, 남경사범대, 중국전매대, 장춘과기대, 대외경제무역대이고 각 학교마다 2 명의 2, 3 학년 학생이며, 현재 고급반에서 공부하고 있다.<sup>1</sup>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판단한 한국어 능력 수준은 한국어능력시험의 5 급과 6 급에 해당하는 학습자(이하 ‘고급 학습자’) 30 명과 3 급과 4 급에 해당하는 학습자(이하 ‘중급 학습자’) 14 명이였다. 이들의 한국어 학습 목표는 취업 28 명, 대학원 진학 11 명, 대학 진학 4 명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어 학습 기간은 6 개월 8 명, 1 년 11 개월 5 명, 2 년 21 명, 2 년 6 개월 1 명, 2 년 11 개월 1 명, 3 년 8 명이였다. 이 기간의 차이가 이유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만을 고려해서 적은 학습자와 중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기간도 모두 포함한 학습자들의 응답 차가 있기 때문이다.

### 3.2.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는 크게 4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이다. 그리고 각 조사의 세부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세부 항목

#### 예) 쓰기 영역

1. 한국어 수업 중에서 쓰기수업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2. 쓰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어 자체의 문제/교수 방법의 문제/학습자 본인의 문제로 나누어 응답)
4. 쓰기에서 어떤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5. 쓰기를 어렵게 하는 ‘어휘’는 무엇입니까?
6. 쓰기를 어렵게 하는 ‘문법’은 무엇입니까?
7. 쓰기를 어렵게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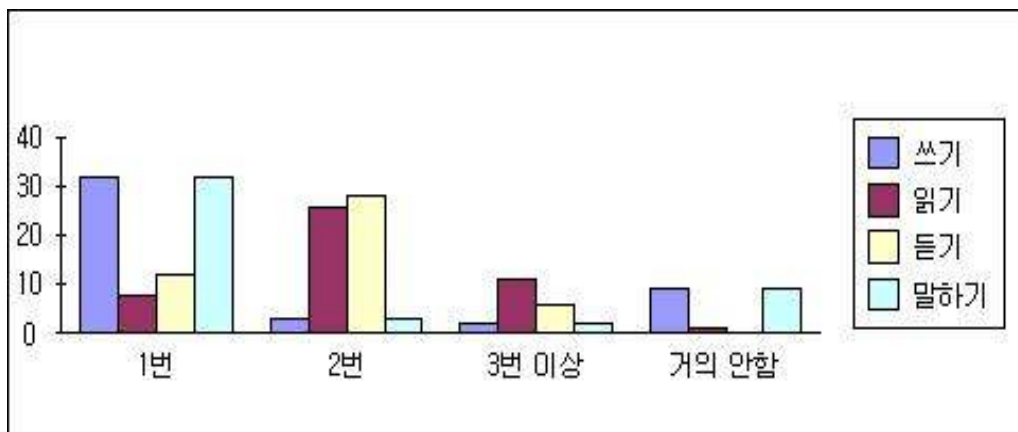
<sup>1</sup> 이 외에도 복단대 1 명과 연변대 2 명의 교환학생이 더 있으나, 1 학년으로 현재 중급반에서 공부하고 있으므로 동일 조건의 조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 <표 1>의 세부 항목을 각 영역에 동일하게 제시하였고, 보기는 영역에 맞게 조금씩 달리 제시하였다. 특히 3 번의 그 영역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우선 한국어와 모국어가 달라서 발생하는 언어 자체의 문제와 교수나 교수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수 방법의 문제, 그리고 학습자 본인의 적성이나 노력 여부 등과 관련된 학습자 본인의 문제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고,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학습 상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 각 영역에서 곤란함을 겪게 하는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어휘, 문법, 내용 등으로 나누어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항을 각 영역에서의 학습 상의 곤란함을 느끼는 문제 유형과 그 세부 구성 요소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4.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상의 문제 유형

먼저 중국에서의 수업 횟수를 일주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아래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에게 쓰기와 말하기 수업 시간이 가장 부족하였다.

<표 2> 수업 횟수(일주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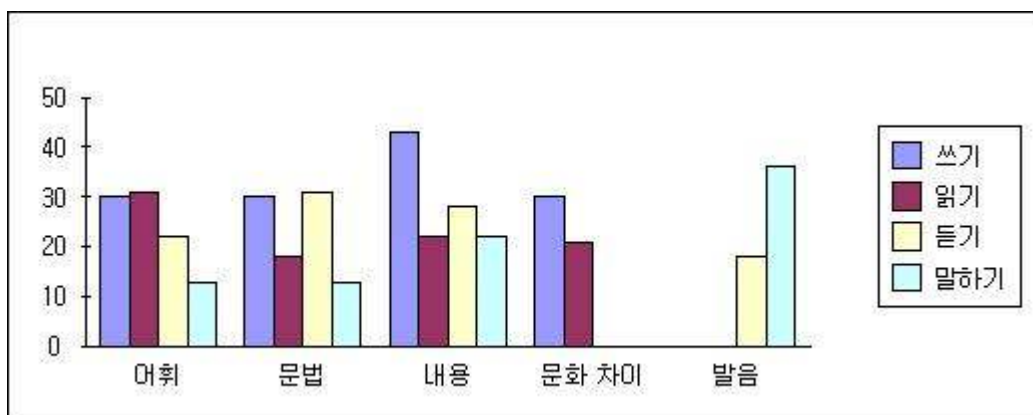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한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게 하였는데 읽기, 듣기, 문법, 어휘, 쓰기, 말하기 영역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23 명의 학습자가 ‘말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총 41.3%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 ‘말하기’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위의 <표 1> 수업 횟수와 관련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수업 시간이 부족하므로 학습자들이 어렵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각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어휘, 문법, 내용, 문화 차이, 발음 등의 보기에서 고르게 하였다.<sup>2</sup> 그 결과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읽기와 듣기에서는 어휘 요소, 쓰기에서는 내용적인 요소, 말하기에서는 발음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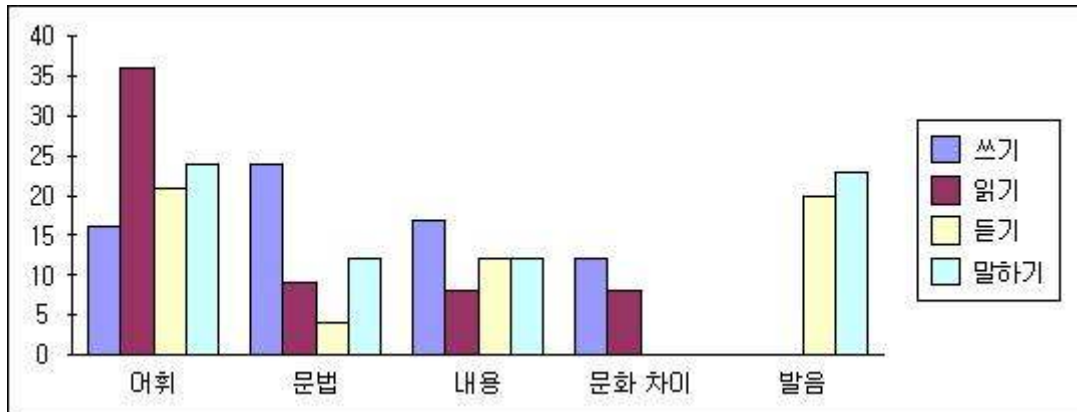
<표 3> 각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반면 각 영역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요소는 중요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읽기에서는 어휘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쓰기에서는 문법의 비중이 중요도 응답보다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학습자들은 듣기에서 문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쉽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중요도와 어렵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비교해 보면 전 영역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은 내용 요소였지만 어렵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발음 요소만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동시에 어려워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발음 교육을 강화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불안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 각 영역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요소

<sup>2</sup> ‘쓰기’와 ‘읽기’는 보기 중에 ‘발음’ 보기 두지 않았고, ‘듣기’와 ‘말하기’는 보기 중에 ‘문화 차이’를 두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살펴본 것은 각 영역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문항이다. 이는 한국어 언어 자체로 인한 것, 학습자 본인에 의한 것, 교수자나 교수 방법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학습자들이 모든 영역에 걸쳐 언어 자체 문제로 인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국어 문법이나 어휘 등을 잘 모르는 것을 꼽았다.<sup>3</sup> 그 뒤를 이어 꼽은 어려움을 각 영역별로 보면 쓰기에서는 한국어의 문장 구조와 모국어의 문장 구조가 달라서 어렵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전체의 38%였고, 읽기에서는 한국어의 끊어 읽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읽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19%였다. 또 연음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듣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은 40%, 연음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자연스럽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이 33%였다.

결국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로 인한 언어적 어려움이 모든 영역에서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것은 한국어 문법이나 어휘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듣기나 말하기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음운규칙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모국어로는 쓰거나 읽거나 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어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때 어렵다는 것이었다.<sup>4</sup> 다만 말하기 영역에서만 문법이나 어휘는 잘 아는데 본인의 연습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시간이 부족하고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말하기 영역에서는 본인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스스로도

<sup>3</sup> 쓰기 52%, 읽기 72%, 듣기 37%, 말하기 46%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법이나 어휘 등을 잘 몰라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sup>4</sup> 쓰기 45%, 읽기 45%, 듣기 58%, 말하기 35%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 ‘모국어로는 문제가 없는데 한국어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때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쓰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모국어로 표현할 때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각각 20%, 17%로 모국어 표현 능력과 외국어 표현 능력의 상관관계로 인해 이 영역에서의 학습 부담감이 가중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의 노력 여부보다는 언어 자체의 문제로 인해 한국어가 어렵다고 응답한 점이다. 사실 학습자의 자각이나 노력 없이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학습자의 이러한 마음가짐은 학습 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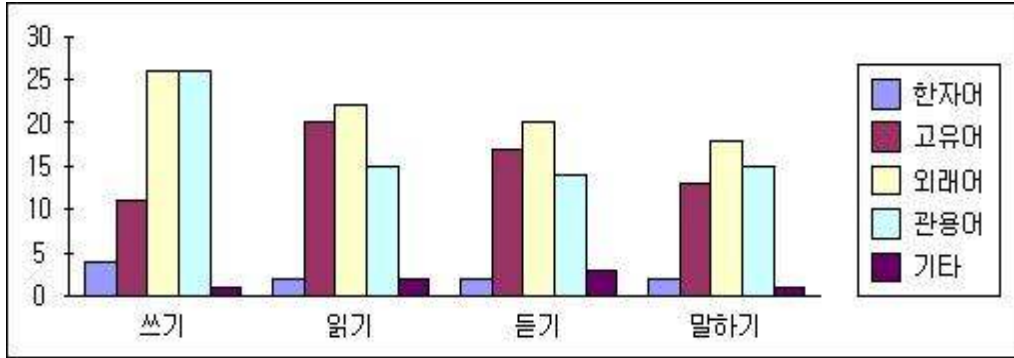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교수 방법에 의한 문제점을 묻는 문항에 대해 많은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글 쓰거나 읽거나 듣는 방법에 대해 별로 배우지 않아서 실력이 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sup>5</sup> 하지만 학습자들은 말하기 영역에 대해서는 이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수자나 교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연습 시간이 부족하여 실력이 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습자들은 전체의 70%로 다른 영역이나 2 순위 보기 응답률과도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말하기 연습 시간 부족으로 인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 부담감 및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각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문제 유형의 세부 요소에 대해 물었는데, 먼저 어휘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아래의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중국인 학습자이므로 한자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적은 반면 전 영역에서 외래어와 관용어에 대한 학습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읽기나 듣기에서는 고유어에 대한 문제의식도 적지 않았다. 외래어는 영어 외래어의 경우 한국어로 표현해 놓으면 의미 추측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관용어는 중국어와 유사점이 있으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고유어는 한자어와 발음이 달라서 유추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기타 의견으로는 의성어와 의태어, 사투리, 유행어, 배우지 않은 전문 용어 등이 있어서 어휘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각 영역에서 어렵게 하는 어휘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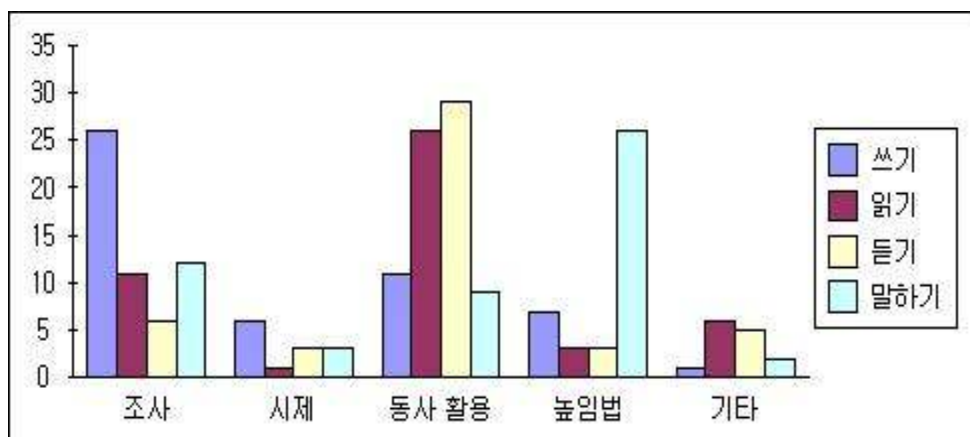
---

<sup>5</sup> 쓰기 61%, 읽기 61%, 듣기 46%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 ‘쓰기/읽기/듣기 방법에 대해 별로 배우지 않아서 실력이 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말하기 영역에서는 12%의 학습자들만이 이 보기를 선택하여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각 영역에서 어렵게 하는 문법 요소는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니 <표 6>과 같았다. 문법 요소의 경우 다른 요소와 달리 각 영역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바가 달랐다. 우선 쓰기에서는 조사 사용에 문제의식이 있었고 읽기와 듣기에서는 동사 활용, 말하기에서는 높임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았다. 조사를 어렵게 느끼는 것은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에는 조사가 많고 그 쓰임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을 이유로 꼽았고, 동사 활용을 문제로 의식한 이유로는 중국에서 틀에 박힌 유형이나 표현을 주로 외웠는데 한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의미를 배우므로 그 활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 높임법은 중국어에는 없는 요소이고 고려해야 할 요소(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 등)가 많은 것을 이유로 들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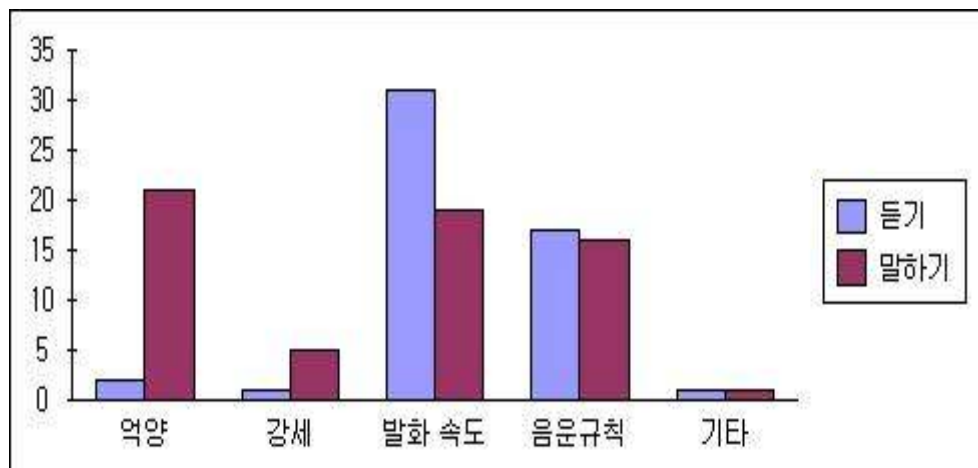
<표 6> 각 영역에서 어렵게 하는 문법 요소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는 발음 요소를 간과할 수 없으므로 다른 영역과 다르게 어떠한 발음 요소를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표 7>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듣기와 말하기 모두에서 발화 속도를 가장 어렵게 인식하고 있었고, 음운 규칙 또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억양과 강세는 말하기에서만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억양에 대한 문제의식이 단연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억양이 어렵게 인식되는 가장 큰 이유로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는데 한국어에는 성조가 없으므로 한국인의 억양을 모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듣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학습자들이 들을 때에는 억양에 관심을 적게 두므로 한국어의 억양을 인지하고 연습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7>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서 어렵게 하는 발음 요소



## 5. 결론

이상으로 중국 한국어학과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나타난 문제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중국 한국어학과 학습들이 인지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의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각 영역에서 문제로 인식하는 요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쓰기에서는 문법을 어렵게 여기고 읽기에서는 어휘를 어렵게 여기고 있으며 말하기나 듣기에서는 발음을 어렵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내용적인 요소나 문화적인 요소가 포함된 부분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에 따라 문법, 어휘, 내용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발음 등의 세부 요소를 나누어 두고 문제 유형에 유의하여 교수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들은 말하기 영역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동시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원인으로 수업 시간 부족, 복잡한 음운 규칙에 의해 발생하는 음운 변화, 발음 및 한국어 억양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을 들었다. 한국어 수업이 문법이나 어휘 설명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학습자는 상대적으로 말할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 부족하였던 말하기 연습이 가능하도록 과제 활동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운 규칙, 억양 등 발음 교육을 강화하여 학습자들이 배운 표현을 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언어적 특징으로 인한 문제, 학습자 자신의 문제, 교수 방법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학습자들은 보편적으로 언어적 특징과 교수 방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착어인 한국어는 고립어인 중국어와 언어적 특징이 상이하므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문장 구조를 만들지 못해서 쓰거나 말하기 등의 표현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사실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문장을 조직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수 방법이나 한국어 자체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급 단계에서부터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두 언어의 특징을 비교, 대조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전공으로 한국어를 선택하였으므로 학습 부담감을 주더라도 기초를 잘 다져주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중국 내 한국어 전공자들이 갖는 문제 유형에 주의하고 이들의 상황을 고려한 학습 환경과 교육 방안, 교재 제작이 이루어진다면 중국 한국어학과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한국어 학습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경훤(2008),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오류 양상에 관한 고찰 - 중국 대학생들의 문장에 나타난 오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0 권, 한국국어교육학회, 5-26 쪽.
- 김선정.김성수(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 연구, 언어와 문화 5 권 3 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39-160 쪽.
- 김철(2008),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어제와 오늘 및 그 미래, 韓中人文科學研究 Vol.24, 中韓人文科學研究會, 275-308 쪽.
- 김춘애(2010),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오류 연구와 지도-모음발음지도를 중심으로-, 중국조선어문 2010년 제 2 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32-35 쪽.
- 박현선(200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요구 분석과 회화교수방안에 대한 제언, 韓中人文科學研究, Vol.24, 中韓人文科學研究會, 309-333 쪽.
- 유형선(2008), 한국어 중급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습득에 관한 연구, 人文科學論叢, Vol.21,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28 쪽.
- 이병운(2008),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경향 분석, 우리말연구 23 권, 우리말학회, 193-227 쪽.
- 장향실(200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절 오류와 교육 방안, 우리어문연구 34 권, 우리어문학회, 349-371 쪽.
- 정철주(200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문연구, 한국어문연구학회, Vol.18, 33-65 쪽.
- 최경봉.이향화(2005),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 어문논집 52 권, 민족어문학회, 5-36 쪽.
- 홍은진(200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 -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1 권, 이중언어학회, 315-358 쪽.